



NEWS LETTER

2020년 9월 21일 Vol. 384

나눔의집 의료협약 체결

동국대학교의료원은 지난 9월 15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4층 중강당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은 나눔의집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진료비 및 종합건강검진 감면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또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의료기관을 나눔의집 건강관리 전담 의료기관으로 지정해 나눔의집 임직원의 건강과 사회봉사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협약식에는 조성민 동국대학교의료원장을 비롯해 이해원 동국대학교 일산병원장, 임성우 동국대학교일산한방병원장, 이형열 일산행정처장, 권범선 기획처장, 김광기 연구부원장, 지도법사 능지 스님, 우용호 나눔의집 원장 등이 함께했다.

조성민 의료원장은 “동국대학교의료원이 개설된 지 40년이 됐고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이 개원한지 15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찍이 시작했어야 할 일을 지금 하게 돼 송구하다”며 “할머니들이 몇 분 남지 않으셨으나 부처님 자비를 실천하는 의미로 의료원 산하 5개 병원이 나눔의집과 힘을 합쳐 할머니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개원 15주년 기념 교계 언론 기자 간담회 개최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이해원 병원장은 지난 9월 15일 4층 중강당에서 불교계 언론을 대상으로 기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동국대학교일산병원 개원 15주년을 기념해 불교계 유일 종합병원으로 승가에 다양한 의료혜택 안내를 통해 많은 스님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해원 병원장을 비롯해 불교방송, 불교TV, 불교신문, 현대불교신문 등 6개 언론기관이 참석했다.

이해원 병원장은 “동국대학교일산병원에서는 스님들의 안정적인 수행 생활을 돕고자 스님 전용병실, 전용수납창구, 승가케어건강검진, 진료비 감면 등 다양한 의료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4층 건강증진센터 내에 스님들이 각종 검사나 진료를 위해 장시간 대기 시 편안하게 쉬실 수 있도록 승가지대방이 마련되어 있다”라며 “앞으로도 동국대학교일산병원은 고령화 시대에 스님들의 평생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수행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 대한수혈학회 적십자 공로상 수상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채석래 교수는 지난 9월 4일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2020년 제39차 대한수혈학회’에서 적십자 공로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그동안 수혈의학 분야의 많은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혈액사업 및 대한수혈학회의 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채석래 교수는 “이번 수상은 저뿐만 아니라,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진단검사의학과 모두의 노력을 통해 인정받은 결과라서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우리나라 혈액사업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